보·도·자·료

서울이동통신

"美 Sprint사와 국제Fax서비스 제공"

- 세계 220개 지역 대상, 4월부터 -

• 수도권 015무선호출 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대표 : 鄭宜鎭)이 미국 3대 통신서비스 사업자중 하나인 Sprint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간 전용망을 이용한 「국제FAX서비스」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 국제FAX서비스란 기존의 국제전화를 이용한 팩스와는 달리 디지탈 방식의 FAX전용망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문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재전송, 동보, 송달확인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팩시밀리의 성능과 관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 국제FAX서비스는 국제간 문서의 송·수신이 많은 무역회사, 언론사, 금융기관 뿐 아니라, 최근에는 연구기관에서 과학이나 기술개발의 새로운 연구에 대한 연구학술논문의 송·수신등 개인간의 정보교환에도 이용되는등 그 이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 서울이동통신 국제FAX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탈 패켓망(PSDN : Packet Switched Data Network)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전화망을 통한 팩스송신에 비해 통화중이나 회선장애시에도 높은 전송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용의 편리성과 저렴한 사용료로 경비 및 인력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서울이동통신의 국제FAX서비스는 미국의 3대 통신서비스 업체인 Sprint사의 Global Sprint Fax망과 접속하여 전세계 220개 지역으로 24시간 서비스 가능하며, 기존 전화망 서비스에 비해 최고 37%까지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이동통신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金泰權 팀장"은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저렴한 이용요금 및 이용자 편의위주의 이용절차를 통해 사업 원년인 95년중에 시장의 15%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무선호출 서비스 1년 6개월에 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팩스부문에서도 그 저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이동통신은 Sprint사와 국제팩스사업 진출을 계기로 E-mail등 다양한 국제VAN 사업에 본격적으로 동반 참여하고 U.S. Sprint의 해외 투자시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무선데이타등 부가통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이동통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TRS, CT2등 신규서비스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등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협대력 PCS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21세기 종합정보 통신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국제팩스서비스는 한국통신이 91년 10월 전화망에서 팩스망을 분리함으로서 전화망의 부하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팩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통신을 비롯하여 데이콤 및 에이텔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참여를 서두르고 있는 유망사업이다.

• 시장규모는 3사가 약 1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40여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년간 매출액은 약 200억원내를 형성하고 있으나 오는 2000년에는 2,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